

2018년 11월 27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위험자산 선호심리 부각되며 상승

상승 요인: 이탈리아 예산안 우려 완화, 국제유가 급등, 무역분쟁 완화

미 증시 변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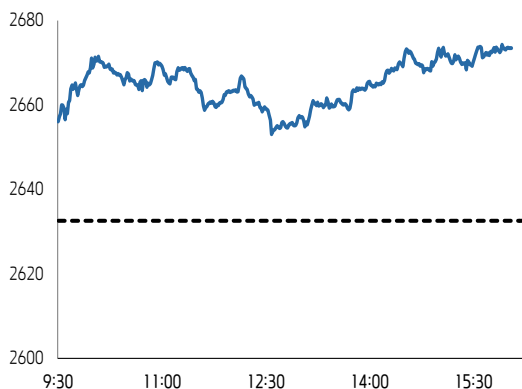
미 증시는 이탈리아 예산안을 둘러싼 불확실성 완화 및 사이버 먼데이 온라인 매출 증가에 힘입어 상승. 더불어 금융주 강세와 국제유가 반등도 우호적인 영향. 오후 들어 무역분쟁 완화 기대감이 높아지자 기술주가 강세폭을 확대한 점도 영향(다우 +1.46%, 나스닥 +2.06%, S&P500 +1.55%, 러셀 2000 +1.16%)

미 증시는 긍정적인 요인인 ①이탈리아 예산안 ②사이버 먼데이 ③국제유가 반등 ④무역분쟁 완화와 부정적인 요인인 ①브렉시트 ②애플 장중 하락 영향으로 변화. 먼저 긍정적인 요인을 살펴보면 이탈리아 예산안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이탈리아 부총리가 2019년 재정 적자 목표치를 축소(2.4%→2.0%)할 수 있다고 언급. EU가 대규모 벌금과 지원 제한 등을 결의한 이후 이탈리아 정부 관계자가 예산안 수정 가능성을 주장하자 향후 협상 기대감이 높아짐.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이탈리아 10년물 국채금리가 15bp 하락하고 주가지수도 2.77% 상승하며 안정.

미국 온라인 판매가 많은 사이버 먼데이를 맞아 오전 10 시까지 온라인 판매가 5.3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매출이 급증.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판매가 전년 대비 18~23% 증가할 것으로 전망. 아마존(+5.28%), 타겟(+2.82%) 등 상승 요인. 국제유가는 이번 주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무역분쟁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 부각되자 2.4% 상승. 12월 OPEC 정례회담에서의 감산 기대감이 재 부각된 점도 긍정적인 요인. 한편, 주미 중국 대사를 비롯한 중국과 미국 정부 관계자들의 무역분쟁 완화 가능성을 높이는 발언 또한 우호적.

반면, 브렉시트 불확실성은 부정적인 요인. 메이 총리가 의회에 출석해 의회 통과를 주문 했으나, 시장은 12월 중순 영국 의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불확실 하다고 분석. 관련 소식에 파운드화가 달러 대비 강세폭 축소. 애플은 대법원이 2011년 제기된 앱스토어 독점금지법 위반 집단 소송관련 애플 의견을 청취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장중 한 때 하락 전환.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종가	D-1	지수	종가	D-1
KOSPI	2,083.02	+1.24	홍콩항셱	26,376.18	+1.73
KOSDAQ	695.36	+1.80	영국	7,036.00	+1.20
DOW	24,640.24	+1.46	독일	11,354.72	+1.45
NASDAQ	7,081.85	+2.06	프랑스	4,994.98	+0.97
S&P 500	2,673.45	+1.55	스페인	9,091.20	+1.96
상하이종합	2,575.81	-0.14	그리스	603.43	+0.14
일본	21,812.00	+0.76	이탈리아	19,233.45	+2.7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대형 기술주와 금융주 상승 주도

아마존(+5.28%)은 사이버 먼데이 매출이 급증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자 상승 했다. 타겟(+2.82%), 베스트바이(+2.86%) 또한 온라인 매출 급증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 했다. 아마존이 급등한 데 힘입어 알파벳(+2.51%), 페이스북(+3.53%), MS(+3.30%) 등도 동반 상승 했다. 애플(+1.35%)은 장중 한 때 대법원이 독점금지법 관련 의견 청취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하락 전환하기도 했다.

JP모건(+2.45%), BOA(+2.19%), 씨티그룹(+3.21%) 등 금융주는 국채금리 상승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다. 마스터카드(+5.07%), 비자카드(+2.31%)와 함께 페이팔(+3.73%) 등도 온라인 매출 증가에 힘입어 상승 했다. 엑손모빌(+1.97%), 코노코필립스(+1.41%) 등 에너지 업종은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다. GM(+4.79%)은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고정지출을 축소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 했다. 포드(+2.96%)도 동반 상승 했다. 캐터필라(+2.03%), 보잉(+1.29%), 3M(+1.55%) 등 산업재도 미중 무역분쟁 완화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 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1.57%	대형 가치주 ETF	+1.25%
에너지섹터 ETF	+1.81%	중형 가치주 ETF	+1.17%
소매업체 ETF	+1.96%	소형 가치주 ETF	+0.91%
금융섹터 ETF	+2.04%	배당주 ETF	+1.28%
기술섹터 ETF	+2.26%	변동성 ETF	-5.44%
소셜 미디어업체 ETF	+3.23%	대형 성장주 ETF	+1.78%
인터넷업체 ETF	+3.03%	중형 성장주 ETF	+1.85%
리츠업체 ETF	+0.21%	소형 성장주 ETF	+1.58%
주택건설업체 ETF	+1.01%	신흥국 고배당 ETF	+0.39%
바이오섹터 ETF	+1.71%	신흥국 저변동성 ETF	+1.18%
헬스케어 ETF	+0.97%	하이일드 ETF	+0.44%
곡물 ETF	-0.47%	물가연동채 ETF	-0.11%
반도체 ETF	+1.99%	Long/short ETF	-0.38%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78.03	+1.72%	-3.43%	-2.96%
소재	337.09	+1.19%	-2.34%	+5.99%
산업재	589.17	+0.84%	-2.41%	+1.41%
경기소비재	822.81	+2.59%	-1.83%	+0.19%
필수소비재	560.66	+0.04%	-2.33%	+1.09%
헬스케어	1,045.51	+0.94%	-1.69%	+3.34%
금융	439.53	+2.10%	-0.92%	+4.81%
IT	1,146.43	+2.25%	-3.97%	-4.09%
커뮤니케이션	144.77	+1.93%	-2.17%	-1.21%
유틸리티	274.81	+0.54%	-0.82%	+1.37%
부동산	203.72	+0.21%	-1.26%	+4.6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무역분쟁 완화 기대 지속

MSCI 한국 지수는 2.76% MSCI 신흥 지수는 1.23% 상승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도(-865계약)에도 불구하고 1.35pt 상승한 271.85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28.3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는 이탈리아 이슈 완화 및 국제유가 상승 등에 힘입어 상승 했다. 이는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의 온라인 판매 매출이 많은 사이버먼데이를 맞아 전년 대비 23.6% 증가(어도비 애널리틱스)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소매 판매 증가 또한 우호적이다. 미국의 소비가 증가하면, 한국의 수출 증가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 21 일 한국 관세청은 20 일까지의 수출에 대해 전년 대비 5.7% 증가하는 등 여전히 견조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발표 했다.

더불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무역분쟁 완화 기대감이 높아진 점도 상승요인이다. 주미 중국대사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무역분쟁은 중국은 물론 미국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언급한 데 이어 “이번 정상회담에서 사태 해결을 위한 가이드스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일부 언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협상 타결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언급했다고 보도한 점도 긍정적이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여전히 미- 중 무역분쟁 완화 기대감이 이어지며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 시카고 국가 활동 지수 양호

10 월 시카고 국가활동지수는 전월(0.14) 보다 개선된 0.24 로 발표되었다. 6 월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경기가 양호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을 반증 한다. 한편, 3 개월 평균도 전월(0.30) 보다 개선된 0.31 로 발표되었다.

11 월 달러스 연은 기업활동 지수는 전월(29.4) 보다 둔화된 17.6 으로 발표되었다. 세부 항목을 보면 생산지수(17.6→8.4), 신규수주(18.9→9.7)은 물론 고용지수(23.9→15.9)도 하락 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반등 성공

국제유가는 지난 금요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했다. 더불어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완화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수요 감소 가능성이 완화된 점도 긍정적이었다. 이와 함께 12월 OPEC 정례회담에서 산유국들의 감산 가능성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 또한 긍정적이었다. 한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선박을 나포한 이후 우크라이나가 계엄령을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된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한다.

달러화는 파월 연준의 발언을 앞두고 약세를 보이다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로 전환 했다. 특히 유로화와 파운드화 변화 여파로 등락을 보인 점이 특징이었다. 유로화는 이탈리아 정부 관계자가 내년 예산안을 수정 할 수 있다고 언급한 이후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더불어 드라기 ECB 총재 또한 “올해 말에 QE 를 종료할 것이다” 라고 언급 한 점도 강세 요인 중 하나였다. 그러나 여전히 유로존 경제지표들이 부진하자 달러 대비 하락 전환했다. 파운드화는 EU 정상회담에서 브렉시트 협상안이 통과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강세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영국 의회 통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자 상승폭이 축소 되었다.

국채금리는 시카고 국가활동 지수가 양호한 결과를 발표되고,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자 상승 했다. 더불어 2년물 국채입찰에서 응찰율이 12개월 평균(2.77 배)를 하회한 2.65 배를 기록한 점도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다만, 파월 연준의 발언을 비롯한 연준위원들의 발언을 앞두고 있어 상승은 제한되었다.

금은 달러 강세 전환 및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자 하락 했다. 구리를 비롯한 비철금속은 국제유가 상승과 미-중 무역분쟁 완화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하기도 했으나, 달러화가 강세로 전환하자 매물 출회되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2.07%, 아연은 1.44% 하락 했으나 철근은 1.76%, PTA 는 2.69%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51.63	+2.40	-8.91	Dollar Index	97.047	+0.14	+0.89
브렌트유	60.48	+2.86	-9.45	EUR/USD	1.133	-0.06	-1.08
금	1,228.70	-0.03	-0.02	USD/JPY	113.6	+0.57	+0.93
은	14.343	-0.17	-1.14	GBP/USD	1.2810	-0.03	-0.34
알루미늄	1,951.50	+0.13	+0.90	USD/CHF	0.9988	+0.14	+0.53
전기동	6,189.00	-0.29	-1.12	AUD/USD	0.7222	-0.15	-0.99
아연	2,487.00	-1.27	-4.35	USD/CAD	1.3256	+0.14	+0.65
옥수수	368.00	-0.67	-2.06	USD/BRL	3.9324	+2.73	+4.57
밀	514.00	+1.33	-0.24	USD/CNH	6.946	+0.02	+0.18
대두	862.25	-2.13	-3.36	USD/KRW	1128.90	-0.14	+0.03
커피	110.80	-0.14	-4.73	USD/KRW NDF1M	1128.30	-0.31	+0.30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3.059	+2.00	-0.38	스페인	1.560	-7.00	-8.80
한국	2.170	+0.50	-2.70	포르투갈	1.882	-5.60	-10.00
일본	0.090	-1.00	-0.70	그리스	4.373	-16.30	-17.40
독일	0.361	+2.10	-1.20	이탈리아	3.266	-13.80	-32.90